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임재 / 나는 노래하네 / 주님이 부르신곳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같이
대표기도		경해리
*성경봉독	엠편 4:11~14	천승은
말씀	제자의 삶 4 - 온전함과 장성함을 추구하는 삶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새로운 계명을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뤄지리
최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제자의 삶 4 - 온전함과 장성함을 추구하는 삶 (엠편 4:11~14)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함과 장성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주제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태어나 유아기로부터 노년기를 경험하듯,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점은 영적 주기는 육적 주기와 달리 모두가 장년과 노년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아기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온전함과 장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고, 그 배경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미성숙함이 한 원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함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장성함'은 성숙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인격적 성숙이 갖춰져 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나 교만한 자는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40세의 모세 vs. 80세의 모세)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자기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인격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앙성숙이 인격 성숙을 이끄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둘째, 공동체의 하나됨을 수호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성장 환경과 처한 삶의 위치가 다른 사람끼리 하나됨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희생하기엔 너무 큰 것을 잃는 꼴이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얻은 존귀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부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옳고 그름이 선명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때입니다. 이런 청년분들께 권면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열심히 익히십시오.

셋째,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본문 11-12절을 보면 당시 교회에도 여러 직책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질서 속으로 서로 순종하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내 자리에 맞는 자세보다 내 ego가 앞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빌4:12-13절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부르심의 자리에 맞게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를 한정 짓지 못하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추가로, 온전함의 마지막 모습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12절) 어찌 보면 너무 흔한 교회 봉사자가 되는 것이 왜 온전함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산책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적 희생, 물질적 희생 뿐 아니라, 감정적 소모와 자신을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섬기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섬김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섬기기 전에 숙고해서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성함에 도달하면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14)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왕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13:34-35)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제자도도 모두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 말고는 허물을 덮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벧전4:8) 우리가 온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것도 결국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것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신앙과 인격의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조금 부족한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내가 속한 공동체(청년부, 목장 등등)에 나에게 bother가 되는 '다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다름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3.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섬김에 있어서 나의 자세에서 돌아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나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청원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희)
- 찬양팀 - 여 성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새가족 교육 수료

김민준, 박준규, 신예랑, 이주한, 조은서, 장영재, 김소희

세례/입교, 유아세례

- 11월 12일(주일) 2부 예배시간
- 신청 : 11월 1일(수) 까지
- 교육/문답 : 11월 4일(토) 오후 2시/11월 11일 (토) 오후 2시
- 주님을 영접하는 공식적 고백이 되는 세례와 유아세례자의 개인 신앙고백인 입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Bridge" UT 캠퍼스 사역

- 매주 목 11:30-1:30, SSB G1.106 (점심 제공)
- 이번주는 UT 해양과학 교수이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시무하시는 민동하 장로님께서 "신앙과 과학" 주제로 간담회를 주관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rise 특별 간증 집회

- 11월 4일 (토) 오후 6시, 분당
- 강사 : 이은상 선교사 (코스타 및 다니엘 기도회 강사, "너 뭐하다 왔니" 저자)

Just Show Up 성경읽기

- 매주 화 저녁 8시 (중)으로 진행중
- 지금이라도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조하영, 안혜성 자매에게 연락)

부목자 임명

- 학부목장: 정한이 형제, 고현이 자매, 조민영 자매
- 대학원목장(조영호 목자): 조인래 형제

이사

- 백다나 자매 (시애틀, 11/1 수)

교역자 동정

- 설교 컨퍼런스 참석, 10/30~11/2, 김상범 목사님 포함 7명의 목사님 참석

일조절약해제

- 다음 주일 (11월 5일) 부터

도서부

- 도서 정리중입니다. 잉여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월 호

- 로비에서 (권당 5불)



예배 / 모임

- 주일청년예배
- 금요기도모임
- 청년목장
- Good Morning 말씀산책
- 토요무릎기도회
- 주일 1pm
- 금 7pm
- 주중 또는 예배후
- 월-금 6:30am
-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희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PSALM AKPC INSTAGRAM | @PSALM_AKPC

